

정기총회서 현 백헌기 회장 재선출 중대재해예방 핵심 인력 양성에 앞장서



(좌)백헌기 회장, (우)강성규 부회장

2022년 12월 9일 협회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나선 현 백헌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백헌기 회장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8월부터 협회 회장을 맡아왔다. 이번 재선에 따라 2025년 말까지 협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장 재선과 관련해 백 회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충북 오송으로의 본부 이전 ▲종합검진센터 건립 ▲윤리경영 실천 ▲사회 공헌활동 강화 ▲인재 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산업보건 사업에 더해 컨설팅·종합검진 등을 연계하는 K-산업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22 정기총회’ 개최, 주요 안건 원안 의결



비상임이사 명단
 구정완(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
 김광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춘(경희대학교 테크노대학원 교수)
 김치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원종욱(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협회는 2022년 12월 9일 대전 KT인재개발원 제1 연수관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백헌기 회장, 강성규 부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김홍갑 사업총괄이사, 김상문 상임 감사를 비롯해 재적 회원 921명 중 7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임원 선출에 관한 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의 보수 한도(안)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다. 임원 선출에서 회장직에는 현 백헌기 회장이 재선출됐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비상임이사 후보 전원이 선출됐다.

이윤정(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준원(송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태용(대한산업보건협회 관리의사)
 이후락(현대자동차 산업보건센터 상무이사)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제주산업보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강성준 제주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2022년 12월 7일 제주산업보건센터 보건교육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표창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뤄졌다.

이날 특별히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이 직접 제주산업보건센터에 방문해 강성준 제주산업보건센터 환경위생팀 대리에게 시상했다. 제주지역본부장은 시상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준 유공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 강성준 대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가며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상질병 예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중 사망자, 재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 200개소를 선정해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등 노동환경 및 고령화, 고객 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쌓여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질병자의 약 60%로 이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예방 점검은 뇌심혈관질환자 발생 사업장, 콜센터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점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병행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사업도 안내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노동자 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1일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겨울 추위가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전망이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및 용접 작업에서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 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 사고 발생 사례가 있어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동절기(2021년 12월~2022년 2월)에 77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 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한파 대책 기간(11월 말~3월 초)을 운영한다.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예방수칙)’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 업체가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12월 8일 노사 대표 등 임직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비전 및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 창립 35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날 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현과 함께 최고의 산재 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선포식은 황동준 노조위원장과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재 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영상 상영 ▲노사 공동 결의문 채택 ▲4대 전략 발표 등을 이어갔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선포식 동영상을 생중계함으로써 새로운 경영체계 실천 의미를 더했다.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는 임직원과 시민들이 새로운 비전·미션 퀴즈, 공단 홍보관 방문, 온라인 채팅, 방명록 작성 등 다양한 체험으로 행사에 함께했다. 한편 안종주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공단은 노사가 함께 인재 중심의 책임경영, 현장 중심의 혁신경영, 고객 중심의 가치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